

(IV)

조 흥 래  
 <한국사료협회 기획부장>

일행은 여행일정에 따라 7월 21일 오후에는 Iowa주에서의 교육여행을 모두 마치고 6:20 아메리칸에어라인으로 시카고를 향하여 데모인 공항을 출발하였다. 시카고 오희라공항을 단일 비행장으로서의 그 규모에 있어서 세계제일의 공항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같은 공항내에 수십개의 항공사가 있어 비행기를 바꾸어 타는데도 먼곳까지 가려면 20분은 족히 걸린다. 그리고 처음 이 공항을 방문하는 미국인들까지도 어리둥절하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 있을 정도로 혼잡을 이루고 있으나 너무나 교통량이 폭주하기 때문에 3개방향에서 동시에 이착륙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며 신호대기로 비행기의 행렬이 줄을 이어 밀리고 있는 것을 보았다. 우리는 공항에 도착하자 곧장 오작크 항공으로 걸음을 재촉하였는데도 15분이 걸려서야 찾는데 성공하였다. 오작크항공은 플로페라 추진기인 소형 여객기로서 저무는 시카고와 미시건 호수를 뒤로 하며 어둠을 뚫고 한시간 동안의 비행 끝에 9:30분에 샴페인 공항에 도착하였으나 때마침 나리던 폭우때문에 비행기 안에서 기다리다가 공항직원이 갖다주는 우산을 쓰고 공항대합실로 들어섰다. 그러나 짐을 찾으려고 하니 데모인 공항에서의 연발때문에 시카고 공항에서의 짐의 접속에 차질이 생겼으므로 부득이 10:30분에 도착하는 비행기를 기다려야만 했다. 이번에 나린 비는 참으로 옥수수과 대두작황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단비였으므로 모두를 반가와하고 있었으며 이방인인 우리 일행에게도 앞으로 국제곡물시세가 안정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 반갑기 그지

없었다. 우리는 다음 비행기에 실려온 짐을 찾아가지고 일리노이 대학의 임승만박사의 안내로 박사대를 방문하여 환담하고 자정이 지나서야 예약된 라마다인을 찾아가 휴식한 다음 오전 9시에는 일리노이대학을 방문했다.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일리노이대학 역내에 들어서니 근엄한 분위기가 감돌았으며 이 유서깊은 배움의 전당에는 50명 이상의 교수들이 축산학분야의 연구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고 한다.

일행이 일리노이대학에서 방문한 교수들과 이야기한 내용을 간추려 소개드리면 다음과 같다.

이스터박사(돼지영양)

돼지의 단백질과 Amino산 요구량 결정을 위한 연구를 계속 수행중에 있다고 하는데 특히 인상적이었던 점은 임신돈의 단백질 요구량이 12% 정도로 충분하다는 결론을 얻었다고 하며 이와 같은 시험을 위하여 우리 나라에서는 공시두수를 많이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데 반하여 여기서는 200두 규모의 공시돈을 사용했다는 것은 부러운 일이었다. 이밖에 항생제의 작용기전을 밝히기 위한 연구에 현재 몰두하고 있다고 했다.

하인즈박사(반추영양)

면양의 영양소 요구량 사양관리방법 개선 조사로 이용문제 반추위내에서 일어나는 생리적 대사적 연구 그리고 왕겨 및 톱밥의 사료적 가치 증진을 위한 연구를 현재 진행중에 있다고 하며 이밖에 새끼면양의 폐사율이 높은 원인을 구명중에 있으며 또한 이 지방에서 다량 생산되는 콩잎, 콩깍지 등의 사료화를 위한 방안도 연구중에 있다고 했다.

베이커박사(가금 및 돼지영양)

함유(含硫)아미노산의 기능 및 대치문제 각종 비타민 특히 코린의 생물학적 이용성 고단백질곡류(단백질이 16~20% 들어 있는 옥수수과 단백질함량이 16%인 연맥등)의 사료적 가치를 연구중에 있다고 하였으며 1978년에

발행 예정인 NRC의 개정판 돼지사양표준에서는 단백질과 함유(含硫)아미노산의 요구량이 지금보다 낮아질 것이라는 것을 시사해 주었다.

### 베커박사(과장 겸 돼지영양)

베커박사께서는 대체적으로 과운영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었는데 축산학과에는 50여명의 교수가 있으며 6개의 자문위원회가 있고 1년예산이 약 200만불(10억원)이 된다고 했다. 연구비는 국립보건원, 주정부 및 각 기업체등에서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며 대학원의 학생수가 80명 학부 학생이 600명이나 되어 교육과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었다. 특히 일행인 한박사께서는 학부와 교과과정에 대한 설명과 자료수집을 많이 하였으므로 참고가 되시리라 본다. 베커박사는 60이 넘는 고령의 교수이지만 짧막한 키 딱 벌어진 어깨 자신만만한 패기와 여유있는 늙은이 자세 활기에 넘치는 의지력등 젊은 사람들이 추종할 수 없을 정도의 정력을 과시하고 있었으며 이 분은 코넬대학에서 30년전에 박사학위를 받은 분으로 한인규박사보다 15년 선배로서 선배답게 친절하게 소개해 주었다.

### 개리거스박사(반추영양)

대학원에서 진행중인 반추영양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다.

일행은 오전중에 일리노이대학 방문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인조잔디로 덮인 대학축구장 옆을 지났다. 이 대학 축구장은 동문회가 찬조하여 30만불 이상을 들여서 만든 것이라고 했다. 우리 나라에서는 예산이 없어 인조잔디로 축구장 하나 만들지 못했던 과거를 생각할 때 대학동문회가 모교에 이와 같은 거금의 선물을 할 수 있다는 협조정신과 모교애에 대하여 고개가 숙인다. 우리는 서울대 농대출신의 유학생의 안내로 교포유승삼씨가 경영하는 만나레스트랑에서 점심을 나누고 호텔로 돌아와 말레이시아 수의사 1명, 그리고 일본의 농업기계시찰단 6명과 함께 일리노이농업서비스회사의 GRose씨의 안내로 농장을 방문

했다.

### 허리언씨의 농장

허리언씨는 240정보의 땅에 옥수수를 재배하고 있었고 이밖에 랜드레이스 종돈 100두와 비육우1,000여두를 가족끼리 사육하고 있었으며 농장 이웃에는 아버지와, 그리고 동생의 농장이 있다고 했다. 허리언씨는 미국 랜드레이스협회 회장이라고 하며 이 농장의 어미돼지에 딸린 한배새끼수는 평균 11~12두 이유자돈은 9두였고 모돈의 생사체중은 약 180~220kg 정도였다. 이 농장에서는 분만사에 들어갈 때에 철저한 방역을 위하여 비니루 신발을 신고 들어가도록 하고 있었으며 분만사에는 보온과 환기를 철저히 시행하고 있었다.

### 류터씨의 농장

일행은 허리언씨의 농장방문을 마치고 류터씨의 농장을 방문했다. 이 농장에서는 600정보의 토지에 온통 옥수수만을 재배하고 있었으나 가축은 전혀 사육하지 않고 있었다. 류터씨는 농과대학을 졸업한 30대의 청년으로서 미모의 부인과 세살짜리 아들과 같이 3인가족이 완전기계화를 통하여 옥수수만을 재배하고 있었는데 새로 구입한 대형트럭터(2천만원 상당)와 콤파이너가 인상적이었다. 한가지 특이했던 점은 트럭터 바퀴의 직경이 6척 이상이나 되며 바퀴 한개의 무게가 2톤 이상이나 되는 마치 탱크를 연상하리 마치 웅장한 트럭타이었다. 한 농가의 경지면적이 600정보라고 하면 우리 나라 국립중축장(성환소재) 면적보다 100여정보가 넓으며 우리나라 농가호당 경지면적보다 660배 이상이나 되는데 이 넓은 농장을 가족경영으로 여가를 선용하면서 즐겁게 경영하고 있다는 것을 그려 볼 때 환상의 세계에서나 볼 수 있는 감회가 아닌가 느껴졌다.

우리는 일정에 따라 다음에는 낭만의 후로리다주를 방문하기 위하여 류터씨내외의 안내로 동행하였던 일행과 작별하고 삼페인 공항으로 돌아와 오후 5:18 시카고행 오작크항공 기편으로 떠났다.

삼페인 공항에 도착하니 일리노이대학의 임승만박사를 비롯하여 종묘연구소에 해외출장 중인 농촌진흥청 작물과장등 교포유학생등 일행 7명이 한박사를 전송하러 나와 주었기 때문에 이분들과 같이 모국에서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새마을운동의 성과, 안보문제, 국제사회와 우리 나라의 입장, 경제발전상, 공무원의 처우개선, 식량자급문제, 농민의 생활과 지위 향상문제, 대학의 현상과 우리의 자세 그리고 동문과 친지들의 안후등에 대하여 잠시 동안의 환담을 나누고 이분들과 작별하고 삼페인을 떠나 예정된대로 시카고에 도착한 다음 시카고 공항에서 이스턴항공편 여객기를 갈아타고 후로리다주 북단에 위치한 잭슨빌공항으로 향했다. 시카고에서 잭슨빌 공항까지는 켄트 여객기로도 2시간 6분이나 소요되는 먼거리이었으며 우리가 잭슨빌공항에 도착했을 때에는 10시 40분이 되었다. 공항에 내리니 서울대학교 농과대학에서 석사학위를 받고 한인규박사의 지도로 현재 후로리다대학에서 가금영양에 대한 박사과정을 이수하고 있는 최진호 선생이 서울대입학과 출신의 동문과 같이 마중 나와 주었다. 일행은 다음날 아침 9시에 게인스빌(130km 떨어진)에 있는 후로리다 대학을 방문하여야 하기 때문에 피곤하지만 이곳에서 쉬지 않고 게인스빌로 향했다.

후로리다주는 미국의 가장 동남쪽에 위치하고 있는 반도로서 남쪽지방이기 때문에 밤중이지만 고속도로 양편의 나무들은 이제까지 중서부나 콘벨트지대에서 보았던 초목과는 달리 아열대식물들로 준비하다. 우리는 낮선 밤길을 헤치며 새벽 한시가 되어서야 게인스빌에 도착하여 호텔을 찾았으나 호텔마다 만원이라 비어있는 숙소를 찾는데 시간이 소요되었다.

아침 일찍 일어나 서둘러 간단하게 요기한 다음 후로리다대학 가금학과를 방문했다. 후로리다대학의 가금학과장인 함즈박사는 가금영양학의 세계적인 권위자로 알려져 있는 분이며 이분은 1970년도에 료슈회사 한국대리점인 동방상사 주최로 로얄호텔에서 열렸던 세미나에 강사로 초청되었던 분이며 함즈박사의

강의내용중 흥미있었던 일은 황산태 무기염의 메치오닌 급여효과에 대한 것이었다. 일행이 후로리다대학을 방문하여 이야기하였던 분들과 내용을 소개드리면 아래와 같다.

#### 덤론박사(가금영양)

폐수처리부산물의 사료화 그리고 조지아주와 후로리다주에서 다량 생산되는 낙화생줄기의 사료화문제, 콕시들킬료제인 Lasalocid, monensin Roxarsone 등의 비교시험을 수행중이라고 하였다.

#### 윌슨박사(생리)

윌슨박사의 연구실을 들리니 깨진 타조알이 책상위에 놓여 있었다. 알고 보니 이분은 타조알의 부화생리 그리고 부화직후 폐사되는 원인등에 대하여 연구중이라고 하였으며 이분 말을 빌리면 10—15년 후에는 지구상에 지금보다 더 많은 오리가 사육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었다.

#### 다그라스박사(지도업무)

후로리다주에는 현재 100만수 이상의 부로일러사육을 하는 업자가 넷이 있으나 양계업은 그다지 활발하지 못한 실정이라고 하였으며 이 네업자가 주로 닭고기의 대부분을 공급하고 있으며 군소업자는 드물다고 했다.

다그라스박사는 100만수 이상의 부로일러사육자를 중점적으로 지도하고 있는데 내외부 기생충의 구제방법을 농민에게 지도해주고 있다고 하며 이밖에 더운 계절에 난중(卵重)이 감소하는 영양적 원인을 구명하고 그 대책을 세워서 농민을 지도하고 있었으며 특히 더운 방에서 사육되고 있는 닭의 영양소 요구량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었다.

다그라스박사의 말을 빌리면 미국인의 1인 1년간 계란소비량이 20년전에는 약 400개이었던 것이 지금은 290개로 대폭 감소하고 있는데 그 원인은 계란을 많이 먹으면 콜레스테롤 축적이 일어나게 되기 때문이라고 했다.

#### 칼취박사(가금영양)

아프리카주의 나이제리아 이바단대학에서

교환교수로 이곳에 와있는 왜소한 체구의 흑인교수이었는데 주로 자기나라 축산업이 발달하지 못한 원인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었다.

### 함즈박사(가금영양)

함즈박사는 산란계의 칼슘인의 요구량 칼슘과 인의 비율문제 특히 인의 요구량에 대한 최근의 연구동향에 대하여 설명해 주었으며 이밖에 채광이 부로일터의 착색을 돕는다는 흥미있는 결과도 알려 주었다. 그리고 무기태인의 요구량은 지금의 표준보다 낮은 수준 즉 0.35% 정도만이라도 충분하다는 실험결과를 얻었다고 했다. 함즈박사는 세계적으로 권위있는 가금영양학자이기도 하지만 학과장으로서 과 운영에도 매우 큰 공을 세우는 것 같았다.

### 아라파박사(가금부산물)

아랍인인 아라파박사는 계란가공 닭고기 가공에 대한 최신정보를 논의하였는데 특히 계란요리의 높은 저장성에 대하여 감탄하였다. 아라파박사를 방문하였을 때 한가지 재미있었던 일은 국민학교 아이들이 그린것과 같이 햇님의 뿔뿔을 책상 위에 걸어 놓고 있었다. 알아보았더니 부인과 아들, 그리고 딸을 그린 것이라고 했다. 아마도 미국의 대학교수들의 거의 전부가 책상에다 자기 가족들의 사진을 놓아두고 보고 있기 때문에 가족들의 모습을 그려놓는 것 같았다. 일행은 이분들과 이곳에서 연구하고 있는 각 분야와 그분들이 맡은 업무에 대한 착담을 마치고 최진호선생의 실험계사를 둘러보았다.

후로리다주는 축산업을 주업으로 하고 있는 지방이 아니지만 후로리다 대학에는 낙농학과 축산학과 및 가금학과가 있고 여기에서 60명의 교수가 연구하고 있는 훌륭한 대학으로서 저명한 축산분야의 교수(학자)들을 많이 배출한 대학이라는 것을 알았다.

일행은 후로리다대학 방문을 마치고 오후 3시반부터 관광을 떠나기로 했다. 현재 시간이 7월 23일 오후 3시반, 7월 25일 오전 9시 21분 항공편으로 잭슨빌공항을 출발해야 하기 때문에 후로리다주에서 머물 수 있는

시간은 정미로 41시간 50분 밖에 안된다. 야 짧은 시간에 어떻게 이틀밤을 휴식해가며 명소로 이름난 우리 한반도보다 넓은 지역을 관광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 흥미거리이다.

후로리다주는 년중을 통하여 눈과 얼음을 볼 수 없는 아열대지방으로서 명소로는 오렌드에 있는 디즈니월드, 스페인이 통치하였다는 st. augustin, 테이토나비치, 팜비치, 케이프케네디, 마이애미비치, 에버그레이드 국립공원, 멕시코만의 아름다운 해안 저멀리 남쪽 열도끝에 위치한 키웨스트등 관광명소가 너무나 많은 관광주로서 관광수입으로 운영되고 있는 주라고 한다. 그러나 일행을 안내하는 최진호선생은 이곳에 유학온 지 1년반이 되었으니 학업에 열중하다보니 이 지역사정에 대하여 생소한 것 같았다.

우리는 st. augustin을 잠깐 관광하고 웅장한 “사자의다리”를 건너 해안선을 따라 이곳에서 약 80km 떨어진 테이토나비치로 향했다. 테이토나비치로 가는 도중의 도로양쪽에는 아열대식물로 수풀을 이루고 있었으며 수풀을 지나니 동쪽으로는 넓고 넓은 대서양의 만경창파가 석양에 반짝이고 있었으며 해안선에는 보트놀이와 보트낚시하는 피서객들이 눈에 뜨인다.

테이토나비치에 도달하니 끝없는 해안선이 시야에 가득하다. 이 해수욕장의 특징은 모래알이 너무나 잘아서 다져져 있어 단단하기 때문에 승용차가 직접 사장(砂場)에 들어올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이 인상적이었으며 “테이토나500 국제고속도로, 관광탑, 카지노, 관광탑에서 볼 수 있는 비치의 아름다움등으로 유명하다고 한다. 우리는 차에서 내려 해지가 전에 카메라의 샷타를 빨리 늘리고 식당을 찾아 들어갔다.

레스트랑에 들어가니 이 레스트랑은 백인들이 주로 출입하는 식당으로서 유색인종은 한 사람도 볼 수 없고 제법 절잡은 백인들로 가득차 있었다. 잠시 기다렸다가 waitress의 안내로 자리를 차지했다. 이제부터의 스케줄은 식사를 하는 도중에 짜기로 했는데 목적지는 이곳에서 300마일(480km) 떨어진 마이애

미 근처에서 오늘 저녁은 자고. 아침 일찍 일어나 8시경에 마이애미 비취를 잠깐 관광하고 마이애미 비취에서 150마일(240km) 되는 거리에 위치한 키웨스트(미국 최남단의 섬의 도시)까지 드라이브하기로 결정하고 오렌드에 있는 디즈니월드관광을 취소하기로 했다.

저녁식사를 마치고 나니 날이 어두어지기 시작했다. 데이토나시는 관광지이기 때문에 고속도로 진입로까지의 시가지를 서서히 달리면서 주위를 살펴노라니 흥등가로 보이는 거리에 “body shop” “top loss bottom less” “Go Go club” 등 내은싸인이 휘황찬란하다. 일행은 모를세라 이 도시를 뒤로 하며 마이애미를 향하여 4차선 고속도로를 타고 달리기 시작했다. 후로리다주는 관광수입을 제일로 하는 지방이기 때문에 확트인 고속도로가 잘 정비되어 있어 장거리 드라이브에 안성맞춤이었으며 교통법규가 까다롭지 않는 것이 특징이라고 한다. 관광객들이 후로리다주에 오기 위해서는 조지아주(카터 민주당대통령 후보의 출생지)를 통과하게 되는데 조지아주는 교통법규가 까다로워 교통위반으로 벌금을 내는 관광객이 많으므로 조지아주는 관광객으로부터 교통위반에 대한 벌금수입을 올리고 있는 반면 후로리다주는 관광수입을 올리고 있다는 일화를 들었다. 우리는 새벽 한시경에 마이애미까지 20 mile(32km)되는 곳에서 쉬기 위하여 숙소를 찾아 보았으나 자정이 지나 한시경이 되었으므로 빈 숙소도 없을 뿐만 아니라 주유소도 모두 문을 닫아 놓았기 때문에 알아볼만한 곳마저 찾을 수가 없었다. 곳곳에서는 젊은 흑인 남녀들이 웅성거리는 모습도 보였으나 일행은 종일 개점하는 주유소를 겨우 찾아 아르켜주는 호텔을 찾아가니 마치 우리를 위하여 밤을 비어놓은 것처럼 다행히 빈방이 하나 있었다. 그곳에서 잠시 눈을 부치고 7시경에 일어나 짐을 챙겨 마이애미로 달렸다. 마이애미에 도착해 보니 해수욕장은 이른 아침이라 자세히는 모르겠으나 기대하였던 것과는 달리 초라하고 백사장의 면적도 좁고 모래도 깨끗하지 못한 것 같았다. 그러나 10층 이상의 아파트와 호텔이 수마일에 펼쳐 출지어

져 있었으며 내륙의 운하에는 깨끗한 물과 아름다운 보트 낚시꾼들의 좋은 휴식처가 많은 것 같았다. 이런 것들을 볼 때 마이애미는 해안보다는 내안(內岸)이 선남선녀와 관광객들의 안식처가 아닌가 생각되었다. 그리고 마이애미항에는 호화찬란한 수많은 대소 여객선이 정박하고 있는 광경을 볼 수 있었는데 우리는 빨리 카메라의 셔터를 누르고 이곳을 떠나 keywest로 향했다. 마이애미 중심가에는 아침 일찍 개점한 식당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도심을 지나쳐서 변두리에 가다 보니 개점한 곳이 보인다. 이곳에서 조반을 먹다 보니 “made in korea”라는 표식이 있는 스푼과 포크로 식사를 하게 되었는데 참으로 기쁘기 그지 없다. 이 먼 곳까지 우리 나라 상품시장이 개척되었다는 것은 무엇보다도 이번 여행에서 잊을 수 없는 한 장면이기도 했다.

마이애미에서 key west까지의 열도(列島)의 길이는 우리 나라 휴전선의 길이보다 8km가 모자라는 거리이지만 이곳의 특징은 대서양과 멕시코만 사이에 산재하고 있는 무수한 작은 섬의 열도가 후로리다주 남단(마이애미)으로부터 큐바북방 140km(서울 신탄진거리)까지 펼쳐 있는데 이 무수한 섬사이를 약 30개의 다리로 연결하여 놓은 미국 최남단의 도시가 바로 keywest라는 곳이다. 이와 같이 떠러진 key west까지의 2차선 도로를 달리노라면 한점의 티끌도 없는 파란 바다가 양쪽으로 전개되며 섬의 수풀사이로 내다보면 피서객들의 보트놀이 바다낚시가 한참이고 갈매기떼와 뽀짝이는 잔잔한 파도 수백미터부터 7마일(11km)이나 되는 “seven mile briage” 비둘기다리, 그리고 “palm tree” 가도가도 끝이 없이 펼쳐지는 맑고 깨끗한 바다 온천지가 파란빛이다. 참으로 이 광경은 그랜드캐년 국립공원이나 옐로우스톤 국립공원 나야가라폭포 콘벤트지대나 텍사스의 대평원 등에서 맛보지 못한 자연의 또다른 신비로움을 만끽할 수 있는 기회이었다. 참으로 이 신비로운 대자연의 경관이야말로 직접 가보지 않고서는 누릴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필설로 표현하기에는 너무나 어렵다. 우리는 네시간 정도의 주행 끝에

정오가 지나서야 목적지인 key west에 도착하였다. key west에서 큐바까지는 90마일(147km)이라는 표시가 있었으며 백인관광객들이 관광열차(서서히 시가지를 달리는 차)에 타고 시가지를 구경하는 모습들이 보였다. 일행은 시간적 여유가 없었기 때문에 key west의 명소·몇군데를 들러 관광하였는데 이곳 명소로는 소설가로 유명한 “헤밍웨이의 집” 조류(鳥類)학자 “오오두번의 집” 포인시안나의 꽃 “대절 보트” “프레이스의 골목길” “옛 key west의 집들” “해안경비본부” “등대” 등이 있고 남쪽 해안의 해수욕장 등이 있다고 한다.

이곳에서 우리가 내일 아침까지 도착하여 떠나야 할 잭슨빌 공항까지는 880km(부산까지의 거리의 두배)나 되며 그 거리중에서 250 km 정도는 고속도로가 없기 때문에 오후 두시에 출발하여 자정까지 간다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었다. 귀로에 고속도로가 중단되어 지방도로에 들어서니 “Kim’s Fruit”라는 과일가게가 있었다. 아마 교포가 경영하는 과수원이 아닌가 생각되어 들렀더니 미국인 남편이 아내의 이름을 따서 “Kim’s Fruit”라는 이름을 붙여 주었다고 하여 이분은 돈암동에서 살다가 국제결혼한 부인이었다.

우리는 당초 계획보다 한시간이 늦은 다음날 새벽 한시에 목적지인 잭슨빌에 도착하여 휴식을 취한 다음 최진호선생과 작별의 인사를 나누고 9시에 잭슨빌 공항을 떠나 시카고를 거쳐 앵커리지(앨라스카)경유 도표행 노스웨스트항공편으로 시카고를 출발했다. 시카고에서 앵커리지로 오는 도중 특히 록키산맥(캐나다 지방 이북)을 내려다 보니 이 록키산맥의 설경(雪景)이야말로 신비가 서린 또하나의 장관이 아닐 수 없었다. 삼복더위인 7월 하순이지만 온 천지가 만년설로 태고의 신비도움을 간직하고 있었으며 녹아 내리는 눈은 빙하를 이루어 온통 골짜기가 아스팔트가 깔려 있는 고속도로처럼 빙하가 번지르르하게 흐르고 있는 것을 보았을 때 참으로 앨라스카에서만 볼 수 있는 진풍경이라는 것을 느꼈으며 도표를 거쳐 7월 27일 왕복 18일간의 여정을 마치고 귀국했다. 지금까지 4회에 걸쳐서 제

1회 국제사료 및 가족영양에 관한 심포지움 참석과 미국농무성 및 미국대두협회가 초청한 교육여행 그리고 틈나는대로 즐길 수 있었던 관광에 대하여 소개드린 바 있다.

한마디로 이번 여행은 다른 경우와 달리 대도시여행이 아니라 소도시에 있는 4개주립대학과 그 주위에 위치한 농장사료공장, 그리고 대자연의 신비가 서려 있는 관광지를 두루 살필 수 있었던 명실공히 교육여행이었으며 네온싸인아래 나그네의 회포를 푸는 통상적인 여행과는 거리가 먼 순수한 맛을 담백 품은 향기로운 여행이었음을 자랑하고 싶다. 참으로 미국이라는 땅은 본대로 들은대로 광활한 토지에 풍부한 자원과 짙은 바둑판을 연상하는 고속도로, 풍만한 육체와 자선미를 과시하는 미녀들이 사는 천혜의 복밭을 땅에 누프론티에의 개척정신이 뿌리를 내려 고도의 문명이 복된 생활을 만끽케 하고 있다.

확실히 미국을 상징하는 것들은 많이 있겠으나 진실된 미국을 알려면 여러 피부색이 다른 인종들이 모여사는 대도시보다는 미국의 부지런하고 평화롭고 부유한 농촌을 가봐야 한다는 것을 느꼈으며 이밖에 철저히 인간공해로부터 보호되고 있는 대자연을 직접 봐야 한다는 것을 실감했다.

그리고 미국의 교포 유학생들의 대부분이 이전보다 조국에 대한 존경심과 긍지를 느끼고 열심히 공부하고 있었으며 조국을 위하여 봉사할 수 있는 기회가 하루 빨리 마련되기를 바라고 있었다.

이번 여행을 위하여 초청의 기회를 마련하여 주신 미국농무성 미국대두협회에 감사드리고 여행중 친절하게 안내하여 주신 교포유학생 여러분 특히 유타대학교의 강대기선생부부 미국대두협회의 이경원박사, 일리노이대학의 임승만박사, 아이오아대학의 이돈구선생, 후론리다대학의 최진호선생께 대하여 심심한 사의를 표하는 동시에 여행기간 중 시중 보살펴 주시고 지도를 아끼지 않으셨던 한인규박사님께 감사를 드리며 이 기회를 마련하여 주신 양계협회 편집부 여러분에게도 감사를 드리면서 글을 맺고자 합니다.